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

보도자료

문의

노동국

연락처

02-6788-3619

e-mail

cpla@minjoo.kr

“기나긴 내란의 겨울을 이겨내고, 노동자의 봄을 맞이하자” 한국노총 각급 조직, 정책협약·지지선언·정책간담회 이어져

한국노총 산하조직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정책협약, 지지선언, 정책간담회 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련,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 이제 시작이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련(위원장 서종주)는 5월 22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년차 전국자동차노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명 위원장이 참석하였고,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과 대선 승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결의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지난 5월 1일 이재명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었고,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주요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라며 “한국노총은 대선이 끝나는 대로, 교통시설 특별회계법에 버스 계정을 신설하는 법개정 활동에 적극 매진하고, 버스 복지재단 설립 등 오래된 과제들을 현실화 시켜내는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이재명 후보와 함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나아갈 것”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산하 12개 단위노조로 구성되어 있는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의장 오상훈)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책임자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5월 22일(목)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공용회의실에서 정책협약 및 지지선언을 열고, “우리는 노동조합의 불모지였던 삼성그룹에서 오랜 무노조 경영을 극복하고, 노동조합을 설립해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그 권리를 지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제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책임자이며, 탄핵 이후에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통합의 리더”라며 지지의 이유를 밝혔다.

한국노총 정연실 상임부위원장은 “삼성그룹은 오랜시간 ‘무노조 경영’이라는 이름아래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해왔지만, 그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와 당당히 노동조합을 세우고 스스로의 권리를 쟁취해 나가려 노력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과 함께 가겠다고 약속한 만큼, 우리는 그 약속의 실현을 끝까지 확인하고 함께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련 부산본부, 레미콘운송노조,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정책협약 및 지지선언

금속노련 부산본부는 같은 날 오후 2시에 정책협약 및 지지선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금속노련 제198차 중앙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민주당과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라며 “이재명 후보는 산업 전환기 정의로운 전환을 달성하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낼 최적의 후보”라 밝혔다.

정책 협약서엔 △제조업 발전 지원 △자동차 부품 업종 지원 △고령노동자 정년 연장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 △노사협의회 민주적 운영 방안 마련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등 금속노련의 핵심 과제가 담겼다.

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동조합도 같은 날 오전 10시에 정책협약 및 지지선언을 진행했다. 레미콘운송노조는 “이재명 후보는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합원 모두가 힘을 모아 대선 투쟁에 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잇따라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도 오전 10시 30분에 지지선언 행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만들기 위해 한국노총이 선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산하조직의 대선승리 실천 활동은 내일(23일)도 계속된다.

공공연대노련(9시 40분, 하이서울유스호스텔)이 정책협약 및 지지선언을 진행한다. 그리고 한국노총 경북본부 북부지부(11시, 영주시근로자복지회관 강당)와 공공연맹 경기지역본부(15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캠프사무소)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4월 28일(월) ~ 29일(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제21대 대통령선거 지지 정당 결정을 위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해 과반 이상을 득표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 정당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대선 후보와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실천하는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끝/

[붙임1 정책협약문]

제21대 대통령선거 승리와 삼성그룹사 노동자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정책협약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와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삼성그룹사 소속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대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의와 연대를 바탕으로 다음의 정책 과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협약한다.

1. **(삼성그룹사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삼성그룹사 내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자신이 권리를 보장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2. **(노사협의회 민주적 운영)**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노사협의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3. **(고령노동자 차별금지 및 온전한 정년연장)**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의 급속한 감소에 따라 고령자 노동력 확보와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노동자 차별 금지 및 고용 연장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4. **(단체협약 효력 확장과 산별교섭 촉진)**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요건 완화, 초기업 단위 사용자단체 구성 등 산별교섭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5.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및 고용·산재보험 보장)** 특수고용노동자인 보험설계사, 개인대리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개인대리점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6. **(산재예방 이행)** 삼성그룹사 내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산재예방 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7.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의 과정을 통해 산업전환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정책수립 및 이행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노동자가 사회적 대화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8. (정책협약)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와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본 협약사항의 지속적인 추진과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2025. 5. 22.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노동존중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김 주 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의 장
오 상 훈

[붙임2 지지선언문]

한국노총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문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산하 12개 단위노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삼성그룹 내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과거 삼성그룹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막기 위해 다양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왔으며, 사법부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 계열사 및 전·현직 임원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설립조차하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노동조합의 불모지였던 삼성그룹에서 오랜 무노조 경영을 극복하고,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동조합이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정치적 결정 사항들은 노동자의 삶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그 사실을 지난 시간 동안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정당하며, 그 속에 소속된 수많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라 믿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 시절, 노동의 고단함을 온몸으로 겪으며 성장한 인물로, 누구보다 노동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풍부한 행정 경험과 강력한 실천력을 통해 ‘일 잘하는 행정가’로 인정받아 왔으며, 위기 상황에서도 뛰어난 리더십과 대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 시도라는 비상식적인 사태에서도 야당 대표로서 흔들리지 않고, 빠르게 계엄 해제를 이끌어냈으며,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주범을 끝내 파면시킴으로써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지도력을 증명했습니다.

이에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이재명 후보야말로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책임자이며, 탄핵 이후의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통합의 리더라고 확신하기에 제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우리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삼성웰스토리노동조합/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동조합/삼성화재노동조합/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삼성SDI울산노동조합/삼성생명노동조합/
삼성에스원참여노동조합 / 전국삼성전자서비스노동조합 /
삼성이앤에이노동조합&U(엔유)/
삼성카드고객서비스노동조합 / 삼성생명서비스노동조합 /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노동조합

※ 첨부: 현장 사진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지지선언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지지선언



▲금속노련 부산지역본부 지지선언



▲레미콘운송노조 지지선언